

대한문명칭의 유래 (大漢門名稱의 由來)

安 丘 山



대한문

우리 조상(祖上)들 중(中)에는 오랫동안 강린(強隣)에게 침략(侵略)을 당(當)한 관계(關係)로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상당(相當)히 사대주의 사상(事大主義 思想)에 기울어진 경향(傾向)이 있었다.

특(特)히 한민족(漢民族)의 문화(文化)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는 한문화(漢文化)를 우리 것으로 완전 소화(完全 消化)를 시키지 못하고 단지(單只) 이용(利用)하는 것에 고쳤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祖上)들은 한문화(漢文化)를 이용(利用)하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도 자각(自覺)못하는 사이에 그만 그 문화(文化)의 발원지(發源地)인 중국(中國)과 한민족(漢民族)을 대등(對等)한 안목(眼目)으로서가 아니라 한층(層) 우월(優越)한 나라나 우월(優越)한 민족(民族)으로 여기는 경향(傾向)이 일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사대주의(事大主義)로 까지 발전(發展)하는 결과(結果)를 가져오고야 만 것이다.

하기야 강대국(強大國)의 위압(威壓)밑에 역사(歷史)를 꾸려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상(祖上)들로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 었을는지 모르나 이 사대주의(事大主義)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건국초(建國初)는 물론(勿論), 고주몽(高朱蒙)이 졸본부여(卒本扶餘)에 나라를 세웠던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만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국위(國威)가 사위(四圍)에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 체언(贅言)할 필요(必要)도 없다.

그렇던 것이 고려(高麗)가 세워지고 중간기(中間期)에 들어가자 무능(無能)한 임금과 권세욕(權勢慾)에만 눈이 뒤집혀있는 간신(奸臣)들 때문에 나라의 기강(紀綱)이 극도(極度)로 어지러워졌었을 뿐아니라 밖으로는 송(宋)나라를 타도(打倒)하고 새로이 일어난

몽고(蒙古)의 철목진(鐵木眞)이 성길사한(成吉思汗)이 되면서 고려(高麗)는 마침내 힘에 눌리어 몽고 원(蒙古 元)에 신속(臣屬)해 버리고만 때부터 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과 관련(關聯)지어서 이조말엽(李朝末葉)에 지금의 덕수궁(德壽宮)의 정문(正門)인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그 명칭(名稱)을 바꾸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인(中國人)들은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고친 것은 한민족 숭상(漢民族 崇尚)의 발로(發露)라」고 제멋대로의 해석(解釋)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소지천만(笑止千萬)의 일이다.

그들이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개칭(改稱)한데에 붙이는 이유(理由)라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얼핏 듣기에 그럴사한 점(點)이 없지도 아니하다.

한국사(韓國史)의 최근세편(最近世篇)을 일독(一讀)한 식자(識者)라면 누구나 기지(既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韓國)의 풍운(風雲)이 어지러워 한양(漢陽)이 국제각축전(國際角逐戰)의 무대화(舞臺化)로 돼버렸을 때, 여기에 상전국(上典國)으로서 뛰어난 청조(淸朝)의 오조유(吳兆有), 원세개(袁世凱) 등(等)이 청병(淸兵)을 이끌고 들어와 당시(當時)의 실권자(實權者)인 민비일파(閔妃一派)와 제휴(提携)하여 내정(內政)에까지 간섭(干涉)하자 그것을 들어 대안문개칭(大安門改稱)의 이유(理由)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당시(當時)의 국내(國內)의 정치적실정(政治的實情)으로 보아서는 청조(淸朝)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影響)이라는 것은 한국근세사형성(韓國近世史形成)에 다대(多大)한 바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事實)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개칭(改稱)하게 된 것은 결(決)코 아니다.

주지(周知)하는바와 같이 오조유(吳兆有)나 원세개(袁世凱)가 청병(淸兵)을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온 것은 80여년전(餘年前)의 일이요 그들이 이땅에서 물러간 것은 바로 1894年 갑오(甲午)에 발발한 청일전쟁 직후(淸日戰爭 直後)일 것이다.

한국(韓國)이라는 큰 고기덩어리를 중간(中間)에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일청 양국(日淸 兩國)은 청국함대(淸國艦隊)의 대패(大敗)와 평양전역(平壤戰役)의 결정적 패지(決定的 敗地)로 이땅에서 완전(完全)히 철수(撤收)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동양(東洋)의 잠자고 있던 호랑이라고 일컫던 청국(淸國)이 일청전쟁(日淸戰爭)에서 완전(完全)히 백기(白旗)를 들자 그때까지 청국(淸國)을 다시없는 대국(大國)으로 알고있던 조선민족(朝鮮民族)은 섬나라만도 못한 청국(淸國)을 다시없이 멸시하게 까지 되었던 것이다.

당시(當時)의 국제적(國際的)인 실정(實情)과 민심(民心)의 동향(動向)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개칭(改稱)했다고 해서 이것을 숭한사상(崇漢思想)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만 말하기 좋아하는 실없는 사람들과 그밖에 아직도 자국(自國)이 세계제일(世界第一)이라고 자궁(自肯)하고 있는 중국인(中國人)들이 중화사상(中華思想)의 그늘에서 자존망대(自尊妄大)하게도 이와같은 해석(解釋)을 붙이며 억지로 자위(自慰)하고 있는데 불과(不過)하다.

또한 중국인(中國人)들이 내세우는 이유(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개칭(改稱)한 것은 원래 원세개(元來 袁世凱)가 조선(朝鮮)에 들어와서 통리 아문(統理 衙門)을 세우고 한민족(漢民族)의 위신(威信)

이 조선(朝鮮)을 위압(威壓)할 때에 「위대(偉大)하다」는 「대(大)」자(字)와 한민족(漢民族)이라는 「한(漢)」자(字)를 떼어서 대한문(大漢門)으로 고치었으니 이것은 한민족(漢民族)의 조선(朝鮮)을 위압(威壓)하던 유일(唯一)한 증거(證據)다 라고.

억지 해석(解釋)도 이쯤되면 한민족(韓民族)의 위신(威信)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중국인(中國人)들의 자존망대증(自尊妄大症)에 벌어진 입을 다물수 없을 정도(程度)이다.

2

그러면 원래(元來) 대안문(大安門)이라고 일컫던 덕수궁정문(德壽宮正門)을 어쩌서 대한문(大韓門)이라고 개칭(改稱)했을까?

거기엔 그럴사한 이유(理由)가 다분(多分)히 있는 것이다.

원래(元來)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너무나도 지독(至毒)하게 주역사상(周易思想)에 절어 온 것이다.

무슨 뜻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된다. 그러면 일이 잘 안되는 원인(原因)을 과학적(科學的)으로 구명(究明)하려고 하지 않고 조상(祖上)의 묘(墓)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하는 풍수설(風水說)에 원인(原因)을 두려고 하는가 하면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잘못돼서 그런가 하는 따위의 엉뚱한 곳에서 원인(原因)을 구명(究明)해 보려는 그릇된 습관(習慣)이 거의 생리화(生理化)해 버리다 싶이 되어버려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역사상(周易思想)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리(生理)에서 벗어던지지 못하고 아직껏 우리 생활(生活)의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實情)인데다 당시(當時) 아직도 개화(開化)의 관문(關門)에 이르지 못해 근대문명(近代文明)에 접(接)할수 있는 기회(機會)가 없던 우리 조상(祖上)들의 주역사상(周易思想)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철저(徹底)한 것이어서 거의 생리화(生理化)해 있을 정도(程度)였다. 그런데다 앞치는데 덮치는 격(格)으로 정치적 불안(政治的 不安)에 편승(便乘)해서 향간(巷間)에 횡행(橫行)하던 미신(迷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세력(勢力)으로 사회(社會)를 풍마(風摩)하고 있었는데 그 중(中)에서는 가장 대표적(代表的)인 것이 참서(讖書)의 하나인 정감록(鄭鑑錄)이라는 것이다.

이 정감록(鄭鑑錄)의 기록중(記錄中)에 어떤 것이 있는냐 하면 「女人이 갓을 쓰고 문(門)에 서 있으니 조선지말(朝鮮之末)」이라는 대목이 있다.

「女人이 갓을 썼다」는 것은 바로 「안(安)」자(字)를 풀이해서 한 말이요 문(門)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덕수궁정문(德壽宮正門)인 대안문(大安門)을 뜻한다고 당시(當時)의 유식인사(有識人士)들은 해석(解釋)을 내렸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선(朝鮮)은 임금이 거처(居處)하고 있는 문(門)의 명칭(名稱) 때문에 망(亡)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감록(鄭鑑錄)의 영향(影響)에서 경상도 안동(慶尙道 安東)으로의 천도설(遷都說)까지 향간(巷間)에 널리 유포(流布)되고 있을 정도(程度)였으며 경상도 안동(慶尙道 安東)으로 천도(遷都)만 하면 이씨왕조(李氏王朝)는 다시 흥(興)한다는 말을 하여 제(帝)의 환심(歡心)을 샀으며 심지어는 친용금(親用金)까지 얻어쓰는 년센스도 공공연(公公然)히 횡행(橫行)하고 있는 실정(實情)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사회실정(社會實情) 때문에 조야(朝野)에서는 대안문(大安門)에 명칭(名稱)을 바꾸어야 한다고 논의(論議)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바꾸면 뭐라고 바꾸느냐 하는데 이르러 결국(結局)은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개칭(改稱)하게 된 것이

다.

안자(安字)를 한자(漢字)로 바꿔논데는 「한(漢)」자(字)는 「한강(漢江)」의 양(陽)이라 하여 「한양(漢陽)」이란 데서 나온 것이오 한민족(漢民族)과는 풍마우 불상반(風馬牛 不相反)이다.

이 정도(程度)로 불만(不滿)인대로 어찌해서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고 그 명칭(名稱)을 바꾸게 되었는지 어렵푸시나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